

# 관광객 또 코로나 확진... 제주 '초비상'

### 15~18일 제주여행한 안산 시민 등 2명 양성 판정 도내 곳곳 관광지·재래시장·유명 음식점 등 방문 도, 방문 장소 방역소독 완료... 접촉자 57명 격리

제주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확진자 A씨와 제주 여행에 동행한 지인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거주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제주도에 알렸다. 이들은 3박4일 동안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인 재래시장, 유명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했으며,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한 방역소독도 완료했다. 특히 도는 최근 A씨 일행이 제주 여행 당시 택시를 이용한 추가 동선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한 도민이나 방문객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A씨 일행이 여행기간 동안 이동을 위해 개별 탑승했던 택시는 총 4대였다. 제주도는 이 중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택시 4대 중 1대를 확인해 접촉자 자가격리 및 소독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3대는 이용객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것과, 폐쇄회로(CC)TV로도 차량정보가 확인 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고대상 택시의 동선은 15일 오후 7시25분~7시45분(자매곡수 본점~삼

해인 관광호텔), 16일 오후 6시48분~7시5분(삼해인 관광호텔→동문시장), 16일 오후 8시10분~8시28분(동문시장→삼해인 관광호텔) 등이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발열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19일 오후 검체 검사를 해 20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제주 방문 기간 및 지금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었던 상태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80번째 확진자로부터 서울시 역삼동 한식뷔페 '사랑의 도시락'에서 제주 입도 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기자

# 제주 입도 방글라데시 유학생 3명 확진 1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 도 "접촉자 72명"

제주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늦게 방글라데시 출신 제주한라대학 재학생 18명 가운데 A씨 등 3명이 제주 공항을 통해 입도한 직후 공항 선별진료소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제주에 입도한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들은 총 18명으로, 이중 3명이 제주 도착 직후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학생 일행 가운데 또 다른 1명은 미결정 판정을 받아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1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 3명의 접촉자는 72명이다. 도는 19일 오전 기준으로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서 특별입도절차를 안내하는 안내요원 1명, 제주공항에서 임시 숙소까지 이송을 담당했던 한라대학교 버스 기사 1명, 이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 숙소 관계자 1명, 함께 입국한 학생 15명에 대해 우선 접촉자로 확인해 자

격리 조치했다. 이후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제주 입도 시 이용한 항공기에 동승한 탑승객 54명을 확인해 자가격리와 방역 소독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항공사 별로는 낮 12시52분 제주 도착 티웨이 TW713편(확진자 1명 탑승) 접촉자는 18명(타지역 이관 1명 포함)이며, 오후 1시44분 제주 도착 제주항공 7C117편(확진자 2명 탑승)는 36명(타지역 이관 1명 포함)이다. 제주도는 확진자 3명과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접촉자 총 54명 중 도내에서 격리 중인 52명을 제외하고 타지역으로 이관된 2명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도 보건당국은 해당 유학생들이 입도 직후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곧바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졌고, 3명의 확진자가 모든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총 19명 중 해외 방문이력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13명이다. 이태원기자 ity9456@ihalla.com

# 정의당 "제주도, 코로나19 핑계로 예산 무차별 삭감"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주도가 코로나19 재경 위기를 핑계로 도민의 공감대나 우선순위의 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을 자행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9일 "코로나 정국으로 어느 정도의 세출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수 있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주도의 회와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교육 20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민간안전요원들이 7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이상국기자

# 탈북민 단체 "제주에서 남북 정상회담 해야" 성명

탈북민 단체인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이북9도민정착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발표해 "남북 평화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외가인 제주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남과 북은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외세에 이의되는 불마당을 덮어버리고 신명마당으로 판을 깔아 이 땅을 지킨 조상들과 선조들 바람을 후세가 누리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선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 주세요..."

해경, 40대 사기범 구속  
제주에서 어선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018년부터 유자망어선 선주를 상대로 네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원으로 1년 동안 일하다

다며 선불금을 달라고 속인 후 어선에는 승선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옥살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많아 구속하게 됐다"면서 "선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주들의 상황을 노린 이같은 사기 범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 타이어 판매점 화재 2억 피해

지난 18일 제주시내 한 타이어 전문점에서 발생한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27분쯤 제주시 화북2동 화북공업단지 인근 타이어 판매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이어 전문점 일부(83㎡)와 신품 타이어 2100개, 자동차 부속품 등이 불에 탔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2억3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타이어 전문점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대해기자

# 청소년 고용해 일 시킨 단란주점 업주 징역 2년

청소년을 단란주점에 불법 고용한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장욱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그달 중순 사이 B(15)양 등 청소년 3명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등接客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10대 청소년을 이른바 웨이터로 고용해 술과 안주를 나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청소년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 부부싸움후 찾김에... 해경, 바다 뛰어들던 남편 구조

찾김에 바다로 뛰어든 4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28분쯤 제주시 현사포구 서쪽 방파제 해상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익수자 A씨를 구조해 대기 중이던 119구

급대에 인계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자택에서 부부싸움 끝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해 물에 뛰어들었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을 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갔다는 아내의 119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대해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도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강,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새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은, 탕자묘

제주한라농원은 종자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랑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 (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